

KC

NEWSLETTER

VOL. 45

**GLOBAL GREEN
ENVIRONMENT COMPANY**

**HAVE AN OPPORTUNITY
TO LISTEN TO WHAT THEY DO**

**AFFILIATED
COMPANIES**

**THE THE
HOT ISSUE HOT PLACE**

KC NETWORK 워크숍

Bag Filter Timer 개별

KS GLASS 안전보건활동 1위

5월 First Monday Meeting

KC 그린홀딩스
VISION & MISSION

글
KC코트젤 최형주
KC코트젤 성창제
KC코트젤 이상현
KC글라스 이강모
KC글라스 박임환
KC글라스 홍세리
KCM5
KCES 이정식

소소하게 읽을 거리들

긍정의 힘을 가진 인재들이,
녹색/환경사업의 확장과 발굴을 통하여,
자기 계발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VISION

KC그린홀딩스는 녹색/환경사업 중심의 지주회사로서, 전통적 환경플랜트 사업을 기반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친환경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에 특화된 사업군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창업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잡힌 녹색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녹색/환경산업 전문 사업군으로 성장한다.

각 관계사가 보유한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긴밀한 네트워크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발적인 리더십, 그리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작지만 강한 Global Business의 선도적 기업이 된다.



KC Green Holdings



KC그린홀딩스

Mission & Vision Statement

의 필요성

1. 지주회사 체제 출범에 따른 KC관계사 공동목표의 구체화
2. 네트워크 자원의 공유, 축적 및 확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환경에 능동적 대응
3.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조직에 걸 맞는 자기계발과 공동목표의 실행

Mission

(긍정의 힘을 가진 인재들이),

녹색/환경사업의 확장과 발굴을 통하여,

→ 확장(기존사업의 고객, 시장 확대), 발굴(신규사업/분야 진출)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어떻게 새롭고 의미 있는 가치(Value)를 창출해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계발과 성장을 도모하고,

→ 임직원 개개인의 자기 발전과 성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과정을 유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리더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동기부여 활동이 필요하다.

지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면서 달성하는 환경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성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Our growth, Green growth, & Sustainable future of global society…!

Vison

KCGH는 녹색/환경사업 중심의 지주회사로서, 전통적 환경플랜트(건설)사업을 기반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친환경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에 특화된 사업군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각 시장 별로 다양한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지역별 KC관계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녹색/환경사업 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각 관계사가 보유한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와 확산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긴밀한 네트워크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자발적인 리더쉽

→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임직원이 어려움 없이 생각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우리가 속한 조직과 업무의 주인은 정해진 인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작지만 강한 Global Green Business의 선도적 기업이 된다.

→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1조 원 대의 성과를 달성하는 기업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몸집을 불리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창업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까지 1조원 규모의 → 2012년 KC그린홀딩스 연결 기준 매출액 5,020억으로 10년 뒤 목표로는 숫자 자체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천 억 단위의 성과에서 ‘조’라는 새로운 단위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는 경제성과 중 환경 EPC 사업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각 사업부문이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가질 수 있는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녹색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녹색/환경산업 전문 사업군으로 성장한다.

→ 우리의 비전과 미션에서 추구하고 목표하는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인류와 많은 기업이 달성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과제지만 우리 KC그린홀딩스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취하는 것을 그 시작으로 생각하고 함께 달성해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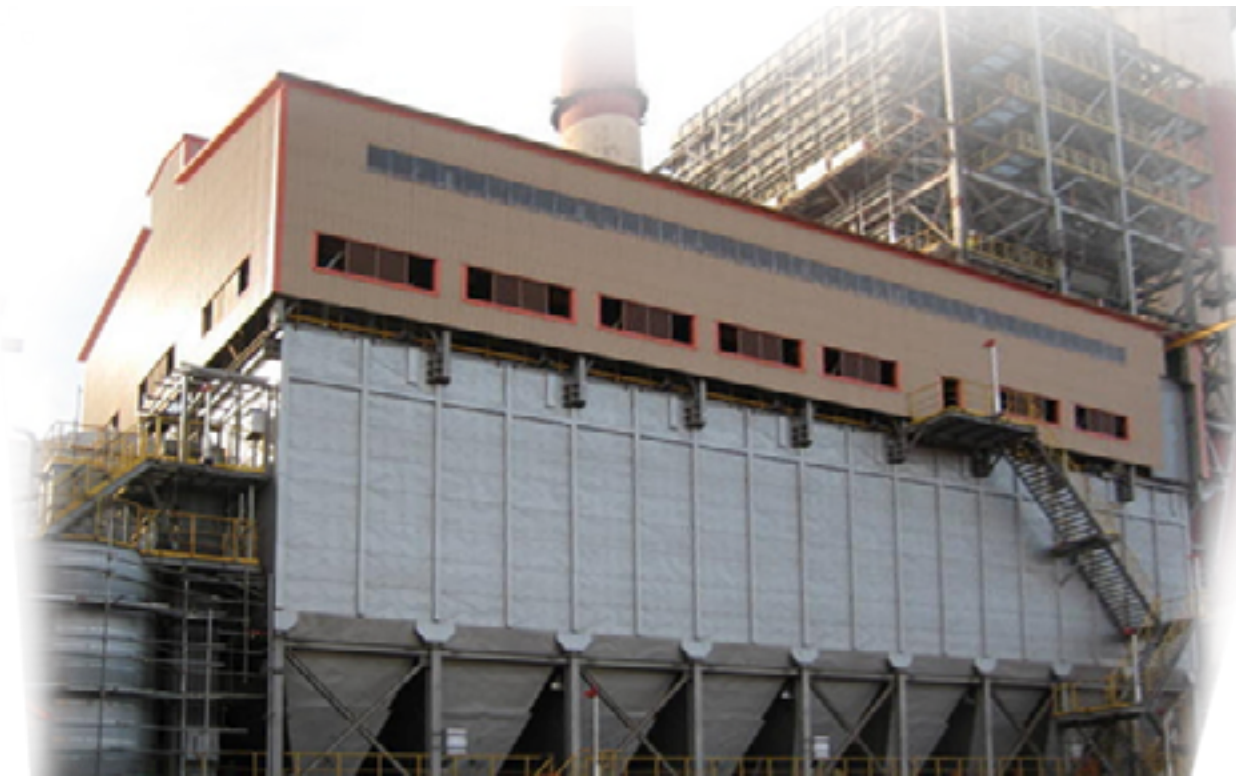
이태영 사장님께서 2013 KC그린홀딩스 관계사 임원 워크샵에서 비전&미션을 공표하시면서 덧붙이신 설명을 요약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안에서 실행까지 K-ONE을 통해 이루어진

Bag Filter Control Board 개발

제철사업부 이종철 선임 개발

(기사 지식경영 이상한)



기존 Bag Filter를 보완하여 Bag Filter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Multi 기능을 내장한 Bag Filter Timer 개발이 완료되었다.

제철사업부 이종철 선임이 K-ONE 제안을 통해 진행하였던 이번 개발은 전기실과 Local 간의 Cable 및 Panel류 감소가 기대되어 제

안 초기부터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존의 경우 Diaphragm 제어 최대 수량이 20 EA 인데 반해, 신규 Control 사용 시에는 최대 200 EA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한,

Poppet Damper 제어를 위해서 기존에는 제어 Panel과 PLC I/O 가 필요했으나, 새로운 Control Board에는 내부에 장착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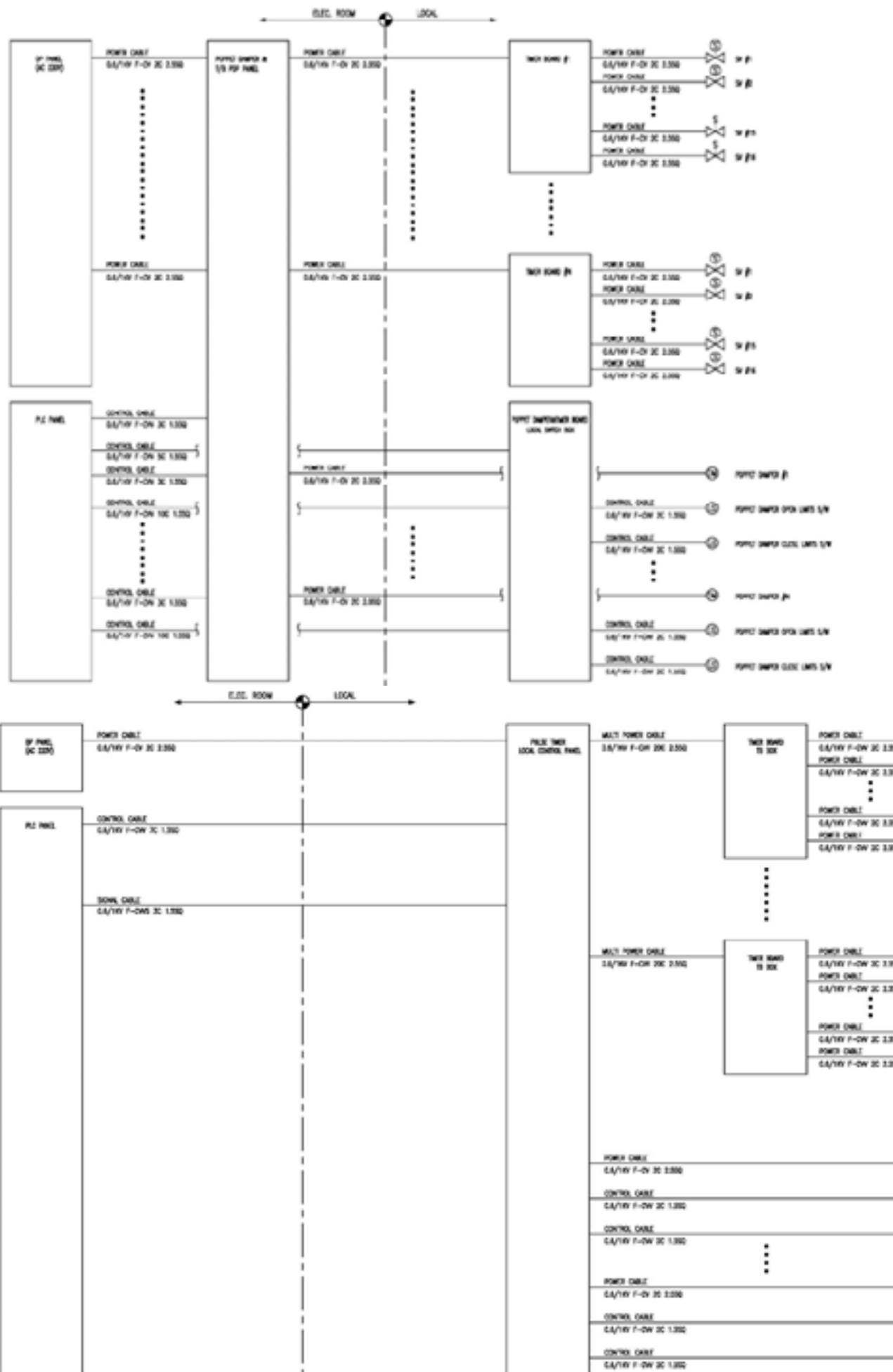
Panel이나 PLC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새 Control Board를 사용했을 경우, Local Switch Box 1면만 필요하여 기존 Poppet Damper PDP, Timer Board PDP, 각 Compartment별 Timer Board와 Local Switch Box가 필요하던 것을 단순화 시켰다. 더욱이 시공 측면에서도 새로운 Control Board는 Power-1 Line과 Control-1 Line을 사용하여 각 Poppet Damper와 Compartment 별로 Power와 Control Cable이 필요하던 것을 간단하게 하였다.

	기존 Timer Board	신규 Control Board
Diaphragm 제어 최대수량	20 EA	10 * 20 = 200 EA
Poppet Damper제어	제어 Panel과 PLC I/O 필요	Panel이나 PLC가 필요없음. (Control Board 내 장착)
Panel	Poppet Damper PDP 필요함. Timer Board PDP 필요함. Timer Board와 Local Switch Box 필요함. (각 Compartment 별)	Local Switch Box 1면 필요함. (1대의 Bag Filter에 1면 필요)
시공	Power, Control Cable이 필요함. (각 Poppet Damper 별) Power, Control Cable이 필요함. (각 Compartment 별)	Power-1 Line, Control- 1 Line 필요함. (1대의 Bag Filter에 1면 필요)

실제로 4제강 열연 Bag Filter와 브라질 Bag Filter를 기준으로 기존 Timer Board와 신규 Control Board 사용 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각각 231,360,000원, 46,150,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발은 테스트 기간을 포함해 총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판권 및 지적재산권을 KC코트렐이 소유하고, 제어 알고리즘 역시 KC코트렐에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Board에 KC코트렐 로고 및 마



크를 인쇄함은 물론, 관련 특허권 역시 KC코트렐로 귀속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Control Board 주요 기능 외에도 Option으로 각 Compartment마다 차압을 측정하여 각 Compartment별 차압을 설정하고 설정 값 이상 차압이 증가 시, Pulsing하도록 구성한 기능이 있다. 이 Option을 사용하면 Bag Filter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고객에 수명연장을 강조하여 Bag Filter 영업 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Bag실마다 차압 발신기가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차압 발신기가 없어도 차압 Option Board 하나면 10개의 차압 발신기를 대체할 수 있다.

차압 Option은 차압 발신기, 발신기 Box, 시공 물량을 별도로 필요치 않으므로 많은 원가절감이 가져온다.

Multi 기능을 내재한 Control Board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제철 사업부분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Project에서 개발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향후 Bag Filter 입찰 시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Item	기존 Timer Board 사용시			신규 Control Board 사용시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수량(EA)	단가(천원)	금액(천원)
1 Board	20 Ea	150	3,000	2	7,000	14,000
2 Local Box	22 면	-	27,000	1	6,000	6,000
3 PLC	1 식	-	13,600			
4 PDP	1 면	-	7,200	-	-	-
소계			50,800			20,000

* KC Cottrell 절감액 : 30,800,000원

Item	기존 Timer Board 사용시 금액 (천원)	신규 Control Board 사용시 금액 (천원)
1 시공비	257,160	56,600
절감액	200,560	

* KC Cottrell 절감액 : 200,560,000원

첫 만남, 그 설레이던 순간

-KC NETWORK 실무진 워크숍



지난달 12일 파주 해리마을에서 'KC NETWORK 실무진 워크숍'을 개최해 새롭게 바뀐 공시제도에 대한 정보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공유하고 관계사 업무보고(ICR, 승인, 보고)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KC NETWORK가 처해 있는 대내외 환경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김정완 부사장의 개회사를 비롯 각 관계사를 대표한 실무진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관계사간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었으나, 금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KC의 임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정완 부사장은 이날 KC의 가족이 가져야 할 자세와 앞으로 KC 관계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워크숍에 참가

한 KC 가족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는 김정완 부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관계사 대표 실무진들이 관계사 업무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뒤이어 재경팀의 장석윤 선임이 변화된 공시제도, 조용이 선임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발표 하였다. 그리고 오전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기획팀에서 ICR과 승인, 보고 등 관계사 업무 보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잠시 업무를 잊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자기 체험 행사가 열렸다. 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각자가 사용할 머그컵에 '자연'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KC라는 이름아래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듯, '환경'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 각자 한 조각의 그림을 만들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면으로만 만나 숨은 재능을 알지 못했던 관계사 직원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KC 관계사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무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 적으로나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KC관계사 전 직원들이 일차단결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자고 말했다.



5월 First Monday Meeting

이기환 상무는 '나는 아날로그인데 세상은 자꾸 나를 디지털로 살라고 한다'는 말이 머리 속에 맴 돈다는 말을 하며 급속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였다.

2013년 5월 6일 본사 지하강당에서 First Monday Meeting(이하 FMM)이 진행되었다. 이 날 FMM은 특별히 KCMS 공장장 이기환 상무가 진행을 맡아 안성공장과 안성에 대한 설명하였다.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이기환 상무는 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근래 Management Trend 중의 하나인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프리미엄, 시대가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객 가치 발굴 프로세스 안에서 디지털 트렌드 뿐 아니라 아날로그 시절의 감성을 결합해 본다면 삶 속에서, 업무 속에서,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발표가 아니었을까 한다.

SMART 경영의 S는 소통이다

KC NETWORK 임원 워크숍



4월 19일 용인 한화 리조트에서 이태영 사장을 비롯한 KC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KC 관계사 실무진 워크숍에 이어 모든 관계 임원들이 모인 금번 워크숍은 KC 관계사 임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태영 대표이사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관계사 임원들의 회사 현황 발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영 대표이사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유지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일,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 임원의 역할임을 설명하며 영속기업으로서 생존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관계사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변화된 공시제도, 일감몰아주기과세, 관계사업무처리 등 실무진 워크숍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임원들 역시 숙지하여 앞으로 발생할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하루만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현 경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조직에서 참석한



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됨과 동시에 2013년 KC관계사 모두가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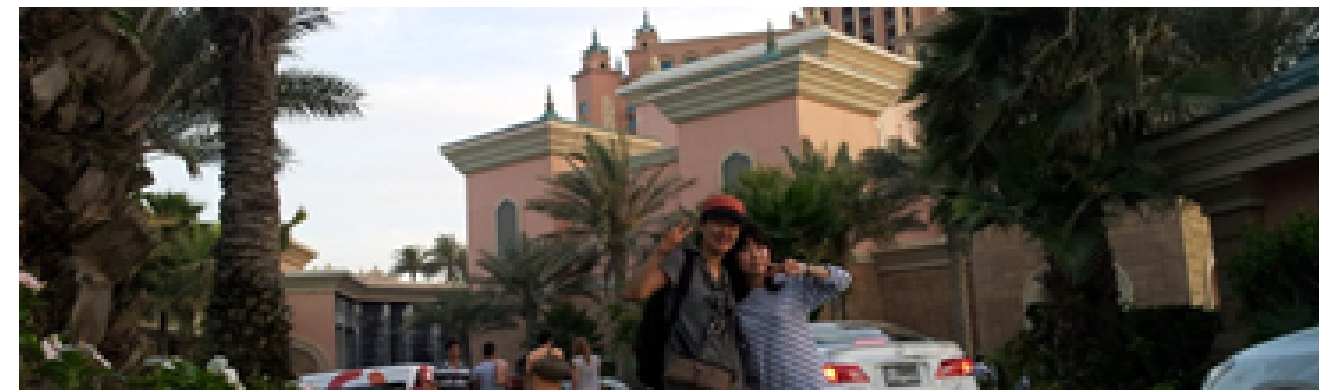


2nd Annual Enhanced Oil Recovery Conference

기술연구소 최형주

입사 1년 6개월 만에 해외 컨퍼런스에 참가 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고 3월 26일 제 2회 국제 EOR 컨퍼런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홍정희 팀장님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6일 01:00 출발 비행기 였기에 월요일 퇴근후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 입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10시간 넘는 비행 후 아부다비에 도착 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 였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안에서 아부다비 전경을 맛보았는데 엄청 크고 크고 세련된 건물들에 압도된 기분 이었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이며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 카이마, 아즈마, 움 알카인, 푸자이라) 들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는 아랍어 외에 영어가 통용되어 모든 간판과 물건들에는 아랍어와 영어가 이중으로 표기 되어 있어 여행 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아부다비 시내를 관광 하기 위해 나왔다. 아부다비에도 시티버스타어를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를 스톱 오버 할 수 있었다. 쇼핑물과 헤리티지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곳), 두바이의 해변 등등 많은 곳을 들렸다. 아부다비는 국민의 96%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교가 이슬람 이어서 그런

지 모스크들이 여기저기에 분포 해 있었다. 첫날 제일 기억 나는 관광지로는 간단히 그랜드 모스크라 불리는 Sheikh Zayed Mosque 였다. 가까이 에서는 사진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모스크였으며 흰색으로 만들어져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깨끗한 인상을 주었다. 내부로 들어 가자 겉과는 다르게 화려한 문들과 기둥들이 모스크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날 부터 Enhanced Oil Recovery(EOR) 에 관한 컨퍼런스에 이틀간 참여 하여 이틀 동안 석유 회수 기술에 관한 발표 내용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석유 보유국 나라들이 대부분 이었다. 석유를 1, 2차에 거쳐 회수를 하고 난 후 남아 있는 석유를 더 회수 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steam, co2, 열, 고분자와 다른 가스들



을 주입하여 석유의 점도를 낮추고 석유의 유동성을 높여 석유를 더 많이 회수 하는 기술에 관한 자료 들이 많았다. EOR 기술이 확대 됨에 따라 석유의 생산량이 더 많아 졌다고 했고 고차원 기술들이 점차 개발 되고 있었다. 다음날로 아부다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두바이에 갔다. 아부다비에 있는 건물들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두바이에 가니 더욱더 큰 건물들이 즐비 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와 7성급 호텔인 버즈 알아랍 을 멀리서만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심정이 안타까웠다. 다음에 오게 되면 저곳에 꼭 머물러 보리~이따금씩 도로에 페라리와 벤틀리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정말 돈이 많은 나라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부다비의 7성급 호텔인 Emirates Palace Hotel 에 들렀다. 호텔 투숙객이 아님에도 둘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유를 주었다. 그곳에서 맛본 금가루 뿌려진 카푸치노!! 맛은 그럭저럭 이었지만 7성급 호텔 커피숍에서 금가루 뿌려진 커피를 즐겼다는 사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사막에 딱 세워져 있는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갔다운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참 돈많은 나라 구나.. 로 정리 할 수 있다. 컨퍼런스 참여 출장 이었지만 석유의 나라를 탐방하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KC글라스] KC 관계사 안전보건활동 종합 1위 달성

생산팀 김순오



2012년 KC Green Holdings 관계사 안전보건 활동 종합평가에서 KC Glass가 종합 1위를 차지하여 표창패를 수여 받았습니다.

KC Glass는 매일 아침 안전체조 실시, 매월 안전캠페인과 사내 게시판에 안전사고사례의 게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 스스로가 안전활동에 동참하여 안전보건 의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매뉴얼의 안전관련 표준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보건 검토와 작업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무재해 5배수(2012.07.03, 1580일)를 달성하였으며, 이번 관계사 안전보건활동 종합평가에서도 1위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KC Glass는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무재해 6배수(2013.07.28, 1980일)를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KC Glass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KC Glass 무재해 좋아 !

KC Glass, We Value your dream and passion!

KC 글라스(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KC 글라스 전사원 교육

경영관리팀 이강모



2013년 4월,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봄의 시작과 함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KC 글라스(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KC 글라스 전사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더 힘찬 도약! KC 글라스’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회사가 상호변경을 공표한 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첫 교육이라는 점에서 모두에게 그 의미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KC 글라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김정완 대표이사의 연설로부터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의 프로정신 및 산악인 허영호 대장의 도전정신에 대한 초대특강, 그리고 친밀감과 협동심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의미와 함께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신 ‘KC Glass & Materials의 CI’의 의미, 유리산업의 시장상황, 수익모델, 2013년 KC 글라스의 목표와 비전 등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전달해주셨던 부분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현재 KC 글라스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와 ‘성장’의 시기입니다. 과거 단순한 유리병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Glass Bubble의 원료를 공급하는 유리소재 범위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또 다른 성장을 꿈꾸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KC 글라스의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직무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의 어떠한 상황도 한마음 한 뜻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KC 글라스의 Hidden Champion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Environment Service(ES)분야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더 높은 비상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KC글라스] 중간관리자 워크숍 실시

중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경영관리팀 박임환



KC글라스는 새롭게 조직과 직책을 개편하면서 직책을 부여 받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수행 및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2013년 4월 30일 당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업무보고, 리더의 역할, 소통 방식의 키워드로 개별 발표 후 피드백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완 대표이사는 강평에서 충분한 열정과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만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KCMS] 워크샵 실시

KCMS만의 새로운 기술 및 영업전략을 찾아

KCMS는 지난 4월 30일 두원 공대에서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WORKSHOP은 KCMS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KCMS 신규투자사업계획 및 KCMS만의 새로운 기술 및 영업전략을 찾고자 시행하였다.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WORKSHOP은 오전에는 이기환 공장장님의 KCMS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영업전략을 운영해 나갈수 있는 방향 및 방법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KCMS 투자개발에 따른 계획 및 KCMS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KCMS만의 효율적인 영업전력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WORKSHOP이었다. WORKSHOP을 마치고 나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KCMS 공장에서는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 및 대화의 장을 만들어 서로간의 이해를 돕는 저녁만찬을 즐겼다.



2013년 상반기 친선교류전 KC 탁구 챔피언들 불꽃 스매싱



2013년 4월 13일일 KC코트렐 탁구 사랑 소모임과 KC Glass간 친선 탁구 교류전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KC코트렐 9명(이봉형, 정재선, 이종우, 이결준, 정원성, 한상용, 장석윤, 김민완, 이기환)과 KC 글라스 7명(임재무, 황태선, 임호민, 조성구, 박인환, 김순오, 김성주)이 참석해 스포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각 팀의 선수들은 일하는 곳도, 하는 업무도 다르지만 탁구공으로 하나 돼 눈빛으로 대화하며 연습경기를 펼쳤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서로를 관찰했다. 친선교류전이 시작되자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교류전은 단식과 복식, 리그 형태로 가장 많은 승을 올린 팀이 우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날 복식은 7승을 한 KC코트렐이 차지하였고, 단식경기는 정재선 팀장, 한상용 주임, 정원성 부장 3명의 공동 우승으로 마무리되었다. KC코트렐 이기환씨는 “그간 KC글라스의 탁구 실력이 KC코트렐보다 월등하다고 알려졌으나 본사 지하에서 매일 연습한 덕분에 KC 코트렐이 이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교류전을 통해 상호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이날의 소감을 전했다. 교류전이 끝난 후, 양팀 선수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 날의 경기를 되돌아보며 친분을 쌓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친선 탁구교류전을 계기로 KC관계사들이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KCES] 팀장 등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며 나아가자

관리팀장 이정식

계절의 여왕 5월! 모든 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며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이 아직은 연한 녹색 7명의 팀장들 중 대부분은 평소였습니다.

에서 질푸른 녹음으로 물들어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단련된 등 1봉인 유영봉까지 오르는 길은

는 계절에 우리는 고흥의 팔영산 산인들?이었지만, 일부는 등산 많은 수목들이 햇빛을 가려주며,

으로 떠났습니다. 하늘은 맑았 이라고 하면 왠지 싫은 겁이나는 너무 가파르지 않게 우리를 안내

고, 컷전을 스치는 바람은 땀방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유영봉 정상에 오

울을 공기중으로 날려줄 수 있을 초입에서 보여지는 팔영산의 장 르기 전 광양에서 온 한무리의 팀

만큼만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관은 마치 한국의 산이 아닌 TV 이 안전지원제를 지내는 목소리

사실 이번 산행 전부터 팔영산에 로 접하던 중국의 여느 산과 같은 가 들려왔습니다.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조금 걱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정상에서 우리는 소원을 빌며 1

정을 하였습니다. 8개의 암벽으 에서 바라본 봉우리들은 저 봉우 배를 하고, 2봉인 성주봉으로 떠

로 이루어진 봉우리를 오르고 내 리들이 과연 등산로로 연결되어 났습니다.

려오는 길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있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을 가져 성주봉에서 배낭을 무겁게 하고



있던 족발을 맛있게 먹고, 3봉인 생황봉, 4봉인 사자봉, 5봉 오로봉을 거쳐 드디어 가장 웅장하고 험난한 모습의 6봉 두류봉을 올랐습니다.

오로봉에서 두류봉을 가기 위해서는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약 100m 가량을 다시 올라야 하는데, 여기에서 체력이 소진된 사람은 다리가 풀리면서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7봉인 칠성봉에 오르기 전 천혜의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공간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우리는 칠성봉에 올라 7배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지막 8봉인 적취봉에 오르며, 이제는 지나버린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론 저곳들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하는 생각과 또 다른 한편으론 언제 또 이러한 봉우리들을 밟아볼까 하는 아쉬운 감정을 뒤로 하고, 8배를 올리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느낀 점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팀장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하나되어 나아갈 때 모든 난관이 극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전체 조직에게도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솔선수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도 단합을 위한 최상의 등산코스 전남 고흥의 팔영산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KC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KC코트렐 본사에서 Technical Session이 열렸다. Technical Session은 KC그린홀딩스가 주최하며 해외 관계사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각 관계사들이 축적한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세션이다. 기술적 공유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인적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매년 1회씩 주제를 선정하여 각 법인의 신청 명단을 받아 참석자의 수에 따라 세션의 규모를 정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법인들의 요청에 따라 세션 이외에 현장투어를 실시하기도 한다.

금번 세션에는 총 5개국(인도, 베트남, 중국, 대만, 이태리)에서 14명이 참가하였으며, 3일간의 본사에서 교육을 마치고 2일간 KCMS, 영흥화력발전소, KCES, 광양제철소의 현장 투어를 실시했다.

국적은 다르지만 KC라는 울타리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5일간의 일정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다.

중국 주나라의 유왕이 총애했던 궁녀는 웃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유난히 사랑하는 왕은, 그녀의 웃음을 보기 위해 외적 침입 때의 비상령인 봉화를 피워 올리기까지 했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웃은 그녀는 유왕을 더없이 기쁘게 했고 왕비로 맞은 후에도 왕은 이 방법을 여러 번 써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왕은 자신이 내친 폐비의 아버지에 의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들만 들어도 우리 생활에 얼마나 웃음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 신체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보장하는 물론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셀이지요.

인상을 좋게 하고 다른 아들까지도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웃음.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
그래도 찾아보면 웃을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삶은 무겁기도 가볍기도 하니
웃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최선옥 시인

미국 재정정책의 3대 이슈와 전망

최근 주택 시장 회복 등을 근거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악화된 재정상황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던 재정절벽 회피에는 가까스로 성공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재정지출 자동감축을 위한 추가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상부진으로 시퀘스터가 발효 됐다. 이에 재정긴축의 강도와 내용, 재정건전성 등은 미국경제 향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그 중, 정치권이 상이한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치권의 대립 구도

주요 이슈		민주당	공화당
세 금	① 세금인상	• 부유층 추가 증세 • 대기업 세금혜택 축소	• 추가 증세 반대
	② 시퀘스터	• 세금 인상 + 지출 유지	• 증세 없이 복지 지출 축소
지 출	③ 의료개혁	• 의료개혁법 수정 없이 전면 시행	• 오바마 의료개혁 폐지 • 의료보장 부분 민영화

1. 세금: 추가인상 vs. 증세 반대

저성장 등으로 미국 세수 감소에 따라 집행정권은 증세 필요성 주장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유층 세금 인상에 합의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규모로 인해 추가 세금 인상을 주장하여 갈등 재연

2. 시퀘스터: '증세+지출'조정 vs. 복지 지출 축소

시퀘스터 조항은 발효를 염두한 것이 아닌 정치권의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를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쁜 정책'으로 의도된 조치

따라서 시퀘스터 유지에는 양당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큰 틀 내에서 논의 진행

3. 의료개혁정책: 시행 vs. 폐지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의료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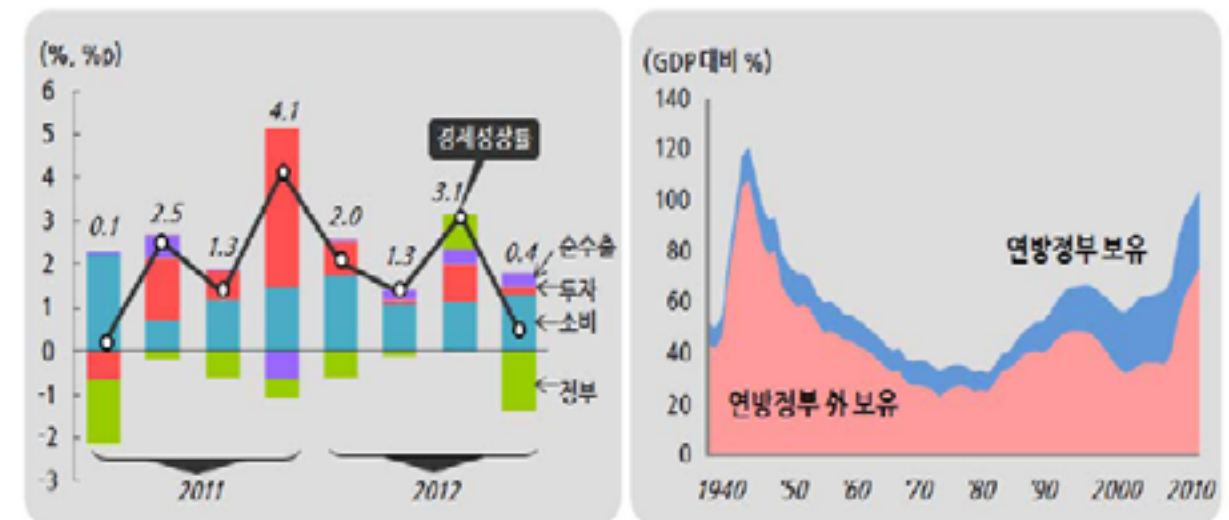
고령인구 증가와 저성장 등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큰 상태에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로 의료보험 재정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정치권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의회의 주도권 분열 등으로 재정정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의 누적이 잠재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

소득세 등 한시적인 세금감면이 종료되고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등 GDP의 4%를 넘는 재정긴축이 발생하여 미국경제가 재침체에 빠질 위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중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 시퀘스터(Sequester):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을 강제 삭감하는 제도.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통제법(일명 '그램-러드맨-홀링스 법')에서 적자한도 초과 예산을 강제 삭감하는 제도로 도입하여 1990년까지 새행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한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특별위원회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역인센티브로 재도입 특별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2013-2021년 중 총 1조 2,00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에 균등 배분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규정

- 재정절벽: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13년부터

미국 재정수지 및 연방정부 부채 추이



주: 연방정부 부채는 연방정부 보유분(Debt held by government)과 연방정부 외 기관 등의 보유분(Debt held by the public)으로 구성

자료: BEA; OMB



나에게 너희들은 희망이란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배우는 라자를 선생님



내가 남들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에게 언니, 오빠, 누나, 형 등등의 호칭으로 갑 행세를 하게 된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이 된다는 것은 어찌 좀 불편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는 적극 동감하긴 하지만,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는 것들로 갑행세를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교단에 아이들 앞에 서 있다면 '선생님' 일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충분히 교훈적일 것이다. 라는 상상은 언제나 분명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은 충분히 짐작이 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도 하다.

<라자르 선생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억척선생 분투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짱>이나 <고교 알개> 같이 쉽고 흔한 영화도 아니다.

교단에 서 있는 것만으로 선생님이란 타이틀은 주지만 그 선생님이라는 '완장'이 결코 학생들을 통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들려주는 일반적인 지루한 설교는 더더욱 아니다. 영화속 나오는 학교는 (교실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다) 배움의 장소라고 하기 보다는 아픈 사건의 발생지 이자, 상처 받은 이들의 공간이다. 그래서 <라자르 선생님>은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박지르지 않고 조용하고 잔잔하게 지켜본다. 몇년 전에 봤던 프랑스 영화인 <클래스>와 많이 닮은 느낌이다.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눈망울이 존재하고, 그 곳에 들어선 낯선 선생님의 익숙하지 않은 시선은 이미 이 영화가 낯익은 일반적인 교훈을 들려주는 영화가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교실안에서의 초등학생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직설적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최소한 거짓이 없고,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낯선 선생님의 눈빛도 충분히 공감된다. 그래서 영화의 타이틀인 '라자르선생님'이 주연이 아니라 라자르선생님과 아이들의 같이 공간하는 교실이 <라자르 선생님>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특별한 에피소드 없이 천천히 진행되는 이야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지루할 수 도 있고 친절할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는 시나리오로는 불편할 수 있다.

이야기는 언제나 기승전결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 예술이라는 공간안에서는 그 어떤 정석과 편견도 무시될 수 있다. 새로운 창조의 기본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라자르 선생님>이 어떤 예술의 범위 안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묵묵히 지켜보는 카메라의 시선과 영화속 선생님을 따르는 알리사의 맑은 눈빛만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이틀 제목처럼 '완장'을 찬 선생님의 교훈적인 고리타분한 목소리가 없어서 말끔하고 깨끗하다. 맛은 좀 덜하지만, 조미료를 넣지 않은 깔끔한 음식 같다.

그리고,

울먹이는 알리사를 위해 바자르선생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알리사의 키높이에 맞춰서 포옹하는 엔딩은 크레딧이 올라갈때 까지 강한 잔상으로 남는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꽃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헤민 스님이 전하는 지혜로운 이야기!

종교와 인종, 가치관을 뛰어넘어 진정한 인생의 잠언을 들려주는 헤민 스님의 에세이『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파워 트위터러안으로 불리는 저자의 지혜로운 대답을 담고 있다. 배우자, 자녀,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나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잠깐의 뒤통짐에 열등감으로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과 열정을 찾을 것,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말을 만들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행동이 되며, 반복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 자신의 온전함과 존귀함을 알아챌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전해준다.



손잡고 떠나 보자, 추억과 웃음 그리고 지식이 남는 그 곳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더 있을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최고
의 이유를 준다. 화창한 날씨, 오늘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서천 국립생태원



누구나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혹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식물원을 갔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말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생태원이 개장하였다. 아직 임시 개관 운영 중이기는 하나 한눈에 전 세계의 다양한 자연을 만들 수 있는 서천 에코리움이 바로 그 곳이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총 99만 8000m² 부지에 지어진 생태원은 생태연구동, 멸종위종연구동, 생태교육동, 생태체험관(에코리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최대 담수어, 포스가 느껴지는 1억짜리 라일 악어, 어린왕자에 나오는 열대 사막의 바오밥 나무, 남극의 펭귄과 북극곰, 수마트라섬의 물고기 와 실로 다양한 종류와 그 크기에 두 눈이 휘둥그래진다.

학교에서 책으로 배우고 TV로 배우는 교육보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듣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에서 시작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이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안 교육법의 핵심은 소통을 통해 교감하는 것이다. 주말 가족들이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 것이야말로 교감의 시작일 것이다.

국립생태원의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장항역에서 걸어서 1분거리에 후문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주말이면 여기저기 곳곳에 정체가 생기는 곳이 많다. 주말 잠시 차는 집에 두고, 가족들이 함께 기차를 타고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먹으며 국립생태원을 가면서 부모의 어릴 적 이야



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현재 국립생태원은 임시개관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예약접수만 가능하다. 자유관람은 불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ecoplex.go.kr을 참조하길 바란다.

국립생태원 근처에는 금강하구철새도래지, 500여년 수령의 동백나무가 있는 마량동백나무숲, 한산모시마을, 영화 JSA공동경비구역, 드라마 추노 등 촬영장소로 유명한 신성리갈대밭 등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

여행이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주말 나들이를 가기 전, 가족끼리 도시락도 만들고, 계획도 짜면서 설레는 기쁨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한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홍대 무스토이



없을 '무'와 스케치 또는 스토리의 'S'를 조합해 만든 "무스토이"는 20여년간 광고계에 잔뼈가 굵은 주인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2010년 문을 연 아트토이 DIY카페이다. 카페에 도착하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무스토이 그림과 무스토이를 준다. 인형에 그림을 그리기 전 스케치한 후, 유성매직, 네임펜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알코올로 그림을 수정하면 된다. 하얀 백지 위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순간 그 것이 바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스토이, 연인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며 서로의 본심(?)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홍대 뿐 아니라 천안에도 있으므로 주변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천안점으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재료를 테이크 아웃해 집에서 만들 수도 있으니 가족끼리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 다 함께 가족 무스토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소: 마포구 서교동 344-6
Kaliopé 빌딩 05호 전화번호: 02-541-9374
영업시간: 11:30-21:30(월요일 휴무) www.mustoy.com
무스토이 체험하기 7,000원 무스토이 가져가기 15,000원 무스토이 세트 테이크아웃 30,000원



걸어서 맛보는 중국, 홍콩, 대만

‘내 벗에게 맛과 멋을 선보인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대만식 수제 딤섬 전문점 “아우미식”은 그 이름만으로도 맛에 대한 믿음을 준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동 딤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토의 맛을 선보이는 이 곳의 모든 소스 역시 수제로 만든다. 물론 딤섬만 파는 곳은 아니다. 딤섬 단품 요리에서부터 세트메뉴 등 딤섬 뿐 아니라 다양한 중국음식이 있다. 메뉴판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아우미식”의 컨셉은 정통중국요리에 홍콩, 대만식의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특별하고 진귀한 미각의 세계를 추구한다. 우리나라의 흔한 중국 요리집처럼 붉은색으로 치장된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홍콩 말로 차찬텡(茶餐廳)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홍콩의 서민 식당 - 반드시 차와 함께 음식이 서빙된다)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우미식’의 인테리어는 이 곳의 컨셉을 잘 표현한 듯 하다. 딤섬의 전체적인 맛의 수준은 하카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우미식”의 하카우는 새우 냄새가 약간 강하긴 하지만 부드러운 쌀만두피와 새우의 조화가 환상적이다. 개인적으로 ‘아우미식’의 최고메뉴 중 하나는 “씨우마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메뉴는 무엇일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주소: 마포구 서교동 358-40 전화번호: 02-325-8687 영업시간: 11:30-22:00(월요일 휴무)
준비시간: 15:00-17:00 sauce63.blog.me



To 기술연구소 최형주 사원

매번 귀찮을만도 하지만,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차
분히 차근차근 대응해 주는 최형주 사원 감사합니다.
분명 본인이 기분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다른 일 때문
에 시간이 모자라는 일도 있을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From 기술서비스팀 김민완 대리

고맙습니다



뉴스레터라는 문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는 문을 만듭니다.
나에게 사소한 일, 익숙한 일들도
저 문 너머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소통의 기쁨은 듣고 말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폭발사고로 고인이 되신 송두범, 서동호, 이일수 세분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치료중인 사우들의 조속한 쾌유와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KC호남환경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KC호남환경 폭발사고는 2013년 4월 24일 오후 2시20분경 전주 KC호남환경 소각시설 선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호남환경 직원 사망 3명, 중상 1명, 경상 6명등 10여명의 사상자와 외부 수집운반 업체 기사1명 경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약17톤의 폐기물을 넘겨 받아 4월23일 소각 가능 폐기물여부를 확인키 위한 테스트 과정에서 소각로안에서 크고 작은 불꽃이 튀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소각을 멈추고, 입고된 폐기물 전량을 반출하기 위해 4월24일 집게 포크레인이 폐기물 반송차량에 옮겨 싣던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KC호남환경은 KC그린홀딩스와 ES Division 소속관계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족들을 위로하고 부상자 치료와 피해상황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조사에 최선을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교훈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 절차와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사고 대피요령에 대한 훈련과 매뉴얼 작성을 하여 두번 다시 동일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세분의 명복과 치료중인 사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KC 전 관계사 일동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